

다향오리

소비자 모니터 요원 모집

다향오리는 소비자 모니터 요원 9기 모집했다. 다향오리 소비자 모니터 요원은 소비자들과 소통을 강화하고 자사의 다양한 제품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한 프로그램이다. 이번 9기는 7월 11일 발대식을 시작으로 약 6개월간 온·오프라인에서 활동하게 된다.

서울 및 수도권에 거주하는 30~40대 여성으로 평소 블로그, 인스타그램 등 SNS 활동을 활발히 하고 가족과 함께 먹을 수 있는 요리, 간단히 즐길 수 있

는 요리 등에 대한 다양한 레시피 노하우에 관심 많은 소비자라면 누구든 지원 가능했다. 다향오리 소비자 모니터 요원은 온라인 미션을 수행하게 된다. 온라인 미션은 다향오리 제품을 활용한 레시피 제안, 신제품 사전 평가, 다향오리 제품 구성과 판매처 등에 대한 정보 공유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다향오리 관계자는 “빠르게 변화하는 식품업계에서 트렌디하면서도 건강한 먹거리에 관심 많은 3040 여성 소비자들의 의견은 제품 개발과 마케팅의 중요한 지침이 된다”며 “소비자들의 생생한 의견을 들을 기회를 보다 다양하게 발굴하고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